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하와이가 그랬습니다. 자연, 날씨, 분위기 모두 너무 좋았기에 저와 아내는 항상 하와이에 다시 한 번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아이들과 다시 찾은 하와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여긴 여행지일 뿐, 평생 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불편함과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와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가득한 여정을 평생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대략 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일생동안 다니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모한 여정을 떠난 것일까요?

첫째, 바울은 ‘사욕’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그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주일예배와 주중 모임에 참여하려고 왕복 3시간의 거리를 매주 3번이나 오간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더니 간단명료하게 “제가 기뻐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엔 ‘사욕’, ‘잘못된 사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심지어 교회로 찾아와 목회자를 개종시키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명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바울은 ‘사명’뿐 아니라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굳이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을 들릅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경로이지만, 바울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서 짧게 2주간 저희와 손주들을 보시려고 오셨습니다. 힘든 비행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활짝 웃으시며 아이들과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기에 고됨도 기쁨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평생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사명만 붙들면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에 붙들린 사명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고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편한 자리’, ‘내가 인정받는 곳’을 찾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만 매이지 말고 ‘사랑’에도 매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 안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나는 지금 어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질문 2) 최근 내가 감당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나요? 누군가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 사랑이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눠보세요.

질문 3) 바울처럼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길이라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해본 경험이 있나요? 나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선택한 어려운 길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복음을 위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나눠보세요.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20)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7(월)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3(주일)
시 75-78	시 79-86	시 87-90	시 91-99	시 100-105	시 106-108	시 109-115

Q T

이번 주 QT 말씀

7/7(월)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3(주일)
시 89:38-52	딤후 1:1-11	딤후 1:12-20	딤후 2:1-15	딤후 3:1-13	딤후 3:14-4:5	딤후 4:6-16